

썸3. 단체에 들어와서 깨진 자기통념 + 언니를 만나면서 받는 스트레스

단체에 들어와서 깨진 통념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인데, 워낙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처음의 화두가 여성들의 피해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피해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힘 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텐데, 우리가 상상했던 피해와 실제의 피해는 같은 걸까요? 활동하면서 겪었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얘기해 봐요.

- 저는 전에 인권단체에서 일하다가 성매매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했는데, 성매매라는 자체가 처음에는 너무 끔찍했어요. 그것이 일상적인 그냥, 합법화된 일종의 강간 같은. 그것이 굉장히 끔찍한 인권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끔찍한 건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선 일상 같기도 하고, 사람 사는 형태의 또 다른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저도 “성매매를 내가 왜 반대하지? 무엇에 대한 반대일까?” 지금도 여전히 고민스러워요. 어떤 피해사실, 폭력적인 상황이나 인권문제 차원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피해로서 인정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찾는데, 성매매 그 자체가 모든 여성들한테 다 피해로서 잘 인식되진 않잖아요. ‘여성이 그런 특정한 직업과 상황에 내몰리는 자체가 구조적인 피해다’ 이런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고 일하는데, 일테면 슬럿워크 그거를 봤을 때도 ‘해프다는 개념이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개념이 뭘까’. 저는 성해방적인 입장이기도 한데, 그런면에서 보면 자유연애와 성매매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자의든 타의든 성매매는 연애라고 하는 거는 확실히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뭐랄까.. 어려운데요?(웃음) 자기가 선택했어도 자발적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저는 일한지가 2년 정도 되었는데, 그전에는 다른 곳에서 10년 정도 일하다 지금 일을 하게되었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이 집결지 근처였고, 청량리 유리방 언니들을 보고 다니면서, 성매매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저도 처음에 되게 이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자활) 작업장 와서 언니들 보면서(일동 웃음). 제가 이직을 했으니까 예전 일하던 사람들이 “어떠냐

이쁘냐 밝히는 여자들이냐” 물어보는데 전혀 아니라고 전혀 안 이쁘다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처음 시작하면 굉장히 용감하잖아요. 그 여성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리라’ 이랬는데 근데 하면서 되게 헛갈리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집결지 상담원 통해서 이렇게 뭐 학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 성구매자로 온 사람을 사귀어서 탈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그 여성들 금방 헤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게 그분들의 삶이잖아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방인이다. 내가 백인선교사처럼 보이진 말아야겠다.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처음엔 백인선교사처럼 굴었죠. ‘기독교를 믿으세요’ 이런 것처럼. 그분들 삶을 엿보는, 그래서 조금은 그 사람이 그 삶에서 본인 시각으로 보게 되길 바래요. 제가 만나던 분도 직업의식가지고 사는 분이 두 분 있어요. 나이가 사십대 후반, 오십대 초반 이신데, 그래서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할 만하고 나도 괜찮다’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이 이렇게 일을 오래 했음에도 건강하니까 제가 새로 만나는 이십대 후반, 삼십대 초반 되는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이 일을 오래하기 위해서 그분과 같은 시각을 가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헛갈려요.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하는 거죠. 저는 지켜보는 거고.

썸4. 이러면서 피해보다는 성판매 여성의 노동정체성으로 온건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상담하면서 만나는 여성들이 자부심 가진다고 하셨는데 성판매 여성으로서 가지는 프라이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 자기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 성매매 일에 대해서 ‘어젯밤에 장사를 어떻게 했어, 손님 많이 왔어’ 이런 얘기들을 소곤소곤 말할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고, ‘업주가 어떻게 했다, 이모가 어떻게 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 해서 거침없이 하시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족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걸로 가족 부양을 한거고, 가족들에게 지지를 받아요. 그 일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해서 성폭력도 방어하고, (이 일 없으

면) 혼자 사는 남자들 어떡하냐' 이런 자부심. 제가 아무리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책이 아니다, 독신 남성들이 성충동을 스스로 해결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길 해도, 그 분들은 살아가는데 자기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여성들은 이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이,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분들은 힘들긴 하지만, 할 만하다는 거. 이렇게 안 힘든 게 뭐 있냐. 그리고 이 일해서 이 정도의 돈 받는 곳이 어디 있냐.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그분들을 계속 지원하는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인천은 집결지 폐쇄가 올해다 내년까지다 얘기되는데, '재개발 할 때까지 일 하겠다' 해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직업의 내용을 떠나서 평생을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돈을 벌었다는 거에는 자부심 가지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모든 노동이 보람찬 노동이 아니기도 하고. 저의 전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청소년을 만날 때는 노동담론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 제가 만나는 여성들은 청소년이고, 보호의 체계에 들어와 있어서(성노동에 대한 고민이 급박하지는 않아요). 저는 성매매 매커니즘을 먼저 접하게 된 게 아니라 워낙에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쉼터에 발을 디뎠다가 알고 봤더니 거기가 성매매방지법 생기면서 피해지원시설로 된 곳이었어요. 선도보호시설이었던 곳이 전환신고 하면서 성매매문제를 접하게 된 거였어요. 그냥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에서 거기에 성매매 경험이 플러스 되면서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 성매매라는 것이. 저는 성매매를 통해서 사회의 많은 부분을 읽어내는 공부를 시작한 것 같아요. 성매매가 인권적으로 무엇이 어때서, 나는 여성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다부진 각오가 시작된 게 아니라, 성매매라는 창을 통해서 역사와 사회와 경제와 이런 것들을 알아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쉼터 생활을 접고, 더 접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상담소로 옮겼던 거고.

워낙에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화, 근절 등등의 얘기가 되고 있었지만, 요즘 좀 더 많이 불거졌죠. 용산부터 영등포가 수위에 올라오면서 말씀하

신대로 성노동이 우위를 차지했고, 근데 저는 일단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위험하다. 제가 정책 연구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절과 합법화의 지점에 대해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를 할 자격도 못 되고.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 영등포 현장에도 있었고, 청소년도 만나고 있고, 항상 그 지점 가운데에, 프라이드를 갖고 정말 멋지게 사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런 여성 기꺼이 응원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친구와 동료로서 만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친구들하고는 요청에 의해서 도와주거나 함께 만나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지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지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간은 꼭 있어야 한다. 근절과 합법으로 인해 뭐가 짝 없어지거나, 딱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든 만날 필요가 있긴 하겠다.

저는 다시 청소년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져요. 성판매를 본인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젊은 몸, 이게 유일한 자원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무궁무진히 많아요. 너무 많고, 많아서 어쨌든 우리가 만나야 할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밌어요.

- 저는 성폭력상담원으로 3년 자원활동 했는데 성매매 쪽에서 너무 일해보고 싶었어요. 재밌는 거예요, 성매매라는 것 자체가. 가정폭력, 성폭력은 가해자건 피해자건 이게 폭력이라는 건, 나쁘다 라고는 얘길 하잖아요. ‘내가 당한 건, 한 건 성폭력이 아니었다, 관계였다’ 라고 할 뿐이지 성폭력 자체는 나쁘다고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매매는 너무나 다양한 지점이 있는데, 이게 재밌고도 어려운 거예요. 성매매판에 가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이론으로 들여다보고 그랬는데, 성노동자 얘기를 들었을 때, 당사자가 활동가로 변하는 경우 많잖아요. 굉장히 잘 활동을 하고. 근데 성노동이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는가를 보면 이론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성노동이라고 치하할 수 있고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너희는 왜 안 하냐는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성노동이라고 명명을 하고 마치 자연스럽고,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길 하는지 너무 의문이었어요. 내가 성매매판에 가면, 성노동자라고 얘길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너가 그럼 성노동 해봐 얘길 하고 싶었어요. 왜 안 하면서 성

노동이라고 애길 하는가. 학교 다닐 때,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얘기하면서 그 판(현장)에 들어가는데, 성노동을 얘기하면서 성노동판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너무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정말 반성매매운동을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일하는 쉼터에서 제가 두 번째 지원을 해서 된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처음에 안 뽑으셨냐구. ‘너무 반성매매라는 의식이 강해서 안 뽑았다’고(일동 웃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느끼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포함된 건데 몸으로 노동하는 건 나쁘고 감정으로 노동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가.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다 있는 건데.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성매매나 그런 관련된 일을 못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을 알선을 하고. 근데 이 여성들이 대부분 선택 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업, 감정노동을 하는 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특히 못 배우고, 가난한 여성들은 왜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을까. 결국은 사회전반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다시 해야 하나. 모든 게 다 순환되는 느낌. 뭔가 연결고리. 해결점이 없는 것 같은.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이 분이 필요한거 해결해주고 저분이 필요한 거 해결해주고, 이게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매매에서, 성노동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섹스업’ 자체를 진짜로 반대하는지, 아니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착취를 포함한 구조를 반대하는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섹스노동은 그래도 다른 노동과는 다르다’ 라고 얘기 하고 싶어 하는 반성매매 운동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연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같을까? 같으면 얼마나 같은가?’ 특정한 노동의 정의와 그것을 구성하는 행위의 본질을 살펴보는 일은 (딱 떼어놓고만 살펴볼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고 봐요.

- 매매가 되고 있는 성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거죠. 성매매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매매가 되고 있는 성이라는 게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인사이에서 하는 섹스의 의미와 성매매현장에서

하는 섹스의 의미를, 행위 자체가 같다고 해서, 가령 여성당사자들이 자기 애인 이랑 섹스할 때와 구매자와 섹스할 때 같은 의미로 두느냐 라는 거죠. 그걸 좀 구분해서,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성매매 산업구조라든가 착취구조를 떼어놔서, 행위자체만 보는 게 좀 그렇긴 해요. 그치만 그것도 좀 짚어봐야지 않나. 막말로 자본주의에서 판매 안되는 게 어디 있냐? 가난한 자들은 안파는 게 뭐가 있냐? 왜 성은 못 파냐?

- 저는 성매매 판에서 충격적이었던 것은, 합법화 얘기하면서 성노동자는 섹스 치료자이고 이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였어요. 사회적으로 여성의 노동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는데, 본인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열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노동을 (사회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논의되지 않고 있는 거. 여성들 자체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이 없는 거. 처음에 컴퓨터에서 일할 때, 정말 자원이 없는 분들이 오셨어요. 자기 생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말 열악한 노동이 아닐까요.

- 노동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합법화한다고 했을 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까. 저는 절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합법화라는 담론이 설득력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잖아요. 그치만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주도하는 주도적 행위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1부에서는 여성들의 현실적인 피해와 상담원으로서의 고민의 변화를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부에서 이야기 하려 했던 반성매매 담론과 관련한 이야기를 벌써 많이 던져주셨네요. 이룸의 고민과 비슷한 지점도 보여서 위안이 돼요 (일동 웃음). 이 고민 우리만 하는 게 아닐까, 뜨아해하시는 건 아닐까 두근거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2부에서 이어갑니다.